

#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 中國本 古書에 관한 一考

金鎬\*

---

## ◁ 목 차 ▷

---

- I. 머리말
  - II. 藏書閣 소장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
    - 1. 善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 2.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 3. 한국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 III. 藏書閣 소장 중국본 고서 정리와 연구의 문제점
    - 1. 인식 전환의 문제
    - 2.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諸問題
  - IV. 향후 藏書閣 소장 중국본 고서 정리방안
    - 1. 目錄編纂
    - 2. 古書解題
    - 3. 其他
  - IV. 맺는말
- 

## I. 머리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고서 소장 기구의 하나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장서각에는 총 429,511冊의 고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국본 고서는 27,313冊이 소장되어 있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수량임이 분명하다.<sup>1)</sup> 동시에 학계에서도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sup>2)</sup>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藏書閣 자료의 현황과 특징〉, 《古典籍》 第2輯, 2006년2월, 102-103쪽.

2) 千惠鳳, 〈藏書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 文化財管理局編輯, 《藏書閣圖書中國版總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고문서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다만 소장 고서에 대한 대부분의 정리와 연구 성과가 한국본 고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학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술한 장서각 고서에 대한 정리·연구 방향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쉬운 것은 소장 고서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본 고서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관련 연구자들은 1974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귀중본총서 제7집으로 출판된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sup>3)</sup>을 통해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소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에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진일보된 정리와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연구자들이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현황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록집인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본문은 상술한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관한 정리와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먼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된 중국본 고서 정리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제시하려고 한다.<sup>4)</sup> 동시에 향후 정리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이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정리와 연구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I. 藏書閣 소장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

먼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물음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가 정리를 진행할 혹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측

目錄》，文化財管理局藏書閣貴重本叢書第7輯，서울시，藏書閣，1974.12，33-36쪽.

3) 文化財管理局編輯，《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文化財管理局藏書閣貴重本叢書 第7輯，서울시，藏書閣，1974.12.

4) 현재 장서각 소장 고서는 고서가 장서각에 유입된 시기에 따라 「장서각소장 본도서」와 「장서각 수집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장서각소장 본도서」에 속하는 중국본 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면에서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善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가장 먼저 살펴 볼 것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가운데 善本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 문헌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천혜봉은 일찍이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해서 「그 중에는 元板本과 明朝의 前期板本이 적지 않게 들어 있고, 日韓末 당시의 皇室 및 高官들이 珍藏으로 愛之重之해 왔던 여러 종의 稀購本을 비롯하여, 四部 各類屬에 걸쳐 善本이 고루 갖추어지고 있다.<sup>5)</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 가운데 선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높은 문헌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서 몇 종류를 소개함으로써 선본 고서의 관점에서 본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문헌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장서각 중국본 고서의 장서 구성을 살펴보면 淸刊本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元, 明刊本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천혜봉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서각에는 약간의 元板本이 소장되어 있는데 《書卷》(1-83)과 《廣韻》(1-261; 1-262)이 그것이다. 《書卷》은 (宋)蔡沈의 《書集傳》에 (宋)鄒季友의 〈音釋〉을 첨부하여 간행한 것이다. 至正23년(1336)에 宗文精舍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중국, 대만 등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sup>6)</sup>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두 절의 《廣韻》은 「원대 건안지방에서 간행된 13행본으로 주석이 생략되어 있는 略本이다. 이 간본은 〈廣韻版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간본으로서 판본학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7)</sup>」 특히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書卷》과 《廣韻》은

5) 천혜봉, 〈藏書閣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 文化財管理局編,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서울, 장서각, 1974, 36쪽.

6) 이 고서의 형태사항은 “圖, 四周雙邊, 半郭 20.3 × 11.8 cm, 有界, 半葉 11行21字, 註雙行, 下向黑魚尾 ; 25.0 × 15.5 cm”로 되어 있다. 表題는 ‘書集傳’ 혹은 ‘書卷’이며, 版心題는 ‘書’이다. 刊記에 ‘本堂今將書傳附入鄒陽鄒氏音釋 … 收書君子幸鑒 至正癸卯(1363)孟夏, 宗文精謹識’라고 기록되어 있다. 藏書印으로는 ‘江風山月莊, 稻田福圖書, 伊藤氏藏書記, 李王家圖書之章’이 보인다. 이를 통해 이 고서는 한 때 일본인에게 소장되어 있다가 장서각으로 유입된 고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두 완질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국외의 기타 판본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내용적인 異同을 밝혀낸다면 더욱 엄정한 의미에서의 문헌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록 원대 혹은 명대 전기 판본은 아니지만 善本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서들이 經部, 史部, 子部, 集部에 다수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經部·春秋類에 수록되어 있는 明萬曆18年金陵書坊周竹潭刊本 王錫爵(1534-1614)의 《春秋左傳釋義評苑》(1-149)은 국내에서는 유일본으로 조사되며, 국외에서도 미국의 프린스턴대학 東亞圖書館과 중국의 故宮博物院圖書館, 陝西省圖書館, 湖北省圖書館, 四川省圖書館 등에만 소장되어 있다.<sup>8)</sup> 이 고서는 淸乾隆年間에 編纂된 《四庫全書》에 수록되지 않았고 근래에 편찬된 《四庫全書存目叢書》와 《四庫禁燬書叢刊》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小學類에 수록되어 있는 明嘉靖間刻本 《爾雅》(1-208), 明崇禎間刻本 《爾雅註疏》(1-214; 1-215), 明天啓間刻本 《爾雅翼》(1-208), 明刻本 《全雅》(1-221) 등 역시 가치 있는 선본 고서이다.<sup>9)</sup> 다음으로 史部·別史類에 수록되어 있는 明天啓刻本 李贄의 《續藏書》(2-105; 2-106)는 明初부터 萬曆以前の 開國功臣, 內閣輔臣, 郡縣名臣, 文學名臣 등 4백여 명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이다. 그 내용이 당시 인물들이 직접 기록한 傳記와 문집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까닭으로 明史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史部·雜史類에 수록되어 있는 《兪州史料》(2-111)는 王世貞이 撰하고 董復表가 輯編한 서적으로 明太祖年間부터 明神宗萬曆年間까지 君臣들의 事迹, 朝廷大事, 社會經濟, 朝野掌故, 民族關係, 對外關係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明史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서적이다. 子部·農家에 수록되어 있는 明崇禎平露堂刻本 徐光啓의 《農政全書》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고서는 서광계 사후에 그의 아들인 徐驥이 肅宗황제에게 진헌하여 肅宗12년(1639)에 간행된 것으로 農本, 田制,

7)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書誌學研究》第52輯, 2012.9, 266-269쪽.

8)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書目(經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248쪽.

9) 이상 네 종류의 고서에 대한 설명은 汪壽明, 〈韓國部分圖書館所見中國古代“小學”善本書〉, 《華東師範大學(哲學社會科學版)》1994年第4期, 88쪽을 참조할 것.

農事, 水利, 農器, 樹藝, 蠶桑, 蠶桑廣類, 種植, 牧養, 製造, 荒政 등 1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비록 여러 농업 및 관련 문헌에서 자료를 발췌하였지만 일반적인 농서가 특정 문제만은 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완비된 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10)</sup> 특히 중국의 농업관련 서적이운데 가장 빨리 고구마의 종식법을 설명하는 등 중국 농서가운데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서적이다. 이 고서의 藏板 기록에서 보이는 「平露堂」은 (明)陳子龍(1608-1647)의 堂名을 가리킨다. 또한 子部·類書類에 수록되어 있는 (元)陰時夫輯, (元)陰中夫註, (明)王元貞이 校勘한 《新增說文韻府群玉》(3-297)은 明萬曆王元貞刻本을 重刻한 것이다. 《新增說文韻府群玉》은 《四庫全書總目》에서 「원대의 압운관련 서적은 오늘날 모두 전하지 않는데 전하는 것 가운데 이 책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元代押韻之書, 今皆不傳, 傳者以此書爲最高).」<sup>11)</sup>라는 평가를 받는 귀중한 서적이다. 특히 조선 선조22년(1589)에 權文海(1534-1591)가 《韻府群玉》의 체례를 따라 《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기타 판본과 비교할 때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가 더 큰 문헌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明萬曆積善堂刊本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3-99)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고서는 송대 象數易學의 始祖라고 여겨지는 陳搏(906-989)이 짓고 역시 송대 상수역학사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긴 邵雍(1011-1077)이 전수받아 述한 것을 후인의 정리를 거쳐 간행된 것이다. 이 고서는 명대 후기에 이르러 인생의 앞날을 예측하는 서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시대적배경하에서 萬曆丙申(1596)에 당시 저명한 출판사인 積善堂에서 출판된 것이다. 장서각 소장본 積善堂刊本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와 중국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崇禎刊本 《河洛理數》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체례나 내용방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장서각 소장본 積善堂刊本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는 간행된 이후로 그 유통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된다. 이 고서는 102개에 이르는 중국의 역대 藏書目錄과 《千頃堂書

10) 《四庫全書總目》: 「其書本未咸該, 常變有備, 蓋合時令, 農圃, 水利, 荒政數大端, 條而貫之, 彙歸於一. 雖採自諸書, 而較諸書各舉一偏者, 特爲完備.」 卷一百二, 〈子部·農家類〉,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2585쪽.

11) 《四庫全書總目·韻府群玉》, 卷一百三十五, 〈子部·農家類〉, 3465쪽.

目》, 《明史·藝文志》, 《四庫全書總目》 등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판본이다. 국내에는 장서각에만 소장되어 있으며 국외에서도 이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장서각 소장본 積善堂刊本은 현존하는 《河洛理數》의 판본가운데 간행시기가 가장 이른 판본이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송정간본에 비해 더욱 완전한 까닭으로 향후 《河洛理數》의 定本化 작업시에 底本으로 이용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장서각 이외에 국내외의 기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sup>12)</sup>

이외에 장서각에는 明末에서 淸初까지 많은 고서를 출판한 저명한 汲古閣 간본의 고서도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다. 《毛詩註疏》(1-90), 《周禮註疏》(1-112), 《孟子註疏解經》(1-202; 1-204), 《爾雅註疏》(1-214; 1-215), 《避暑綠話》(3-213), 《劔南詩彙》(4-61) 등이 모두 汲古閣에서 간행된 서적들로 모두 선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적들이다.

## 2.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 하나 하나는 조선 시대 한중 서적 교류사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향후 이 분야의 진일보된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가운데 일부 고서는 한중 문인교류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정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희는 연행을 통해 많은 중국의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중국 서적을 입수하여 독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관을 형성해 나갔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장서각에는 김정희가 소장하고 있었던 약간의 중국본 고서가 소장되어 있다. (淸)吳鼎(1755-1821)輯 《八家四六文抄》(4-51), (淸)紀昀等

12) 장서각 소장본 積善堂刊本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에 대해서는 김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藏書閣 所藏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의 文獻價値〉, 《중국문학연구》 39집, 2009.12, 41-66쪽을 참조할 것.

奉勅撰 《欽定四庫全書總目》(2-353), (清)魯仕驥《山木居士外集》(4-114) 등에서 「金正喜印」, 「阮堂」, 「秋史珍藏」 등의 장서인이 발견된다. 물론 김정희가 소장하고 있던 개개의 중국 서적과 김정희 학문형성의 관계를 등가적으로 고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장 서적과 김정희 학문형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八家四六文抄》는 淸 中期 袁枚, 邵齊燾, 劉星煒, 吳錫麒, 曾燠, 洪亮吉, 孫星衍, 孔廣森 등 여덟 명의 駢文大家의 駢文을 모이든 總集이다. 김정희의 문장론을 살펴보면 阮元이 〈文言說〉에서 제기하는 駢文에 대한 견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駢文의 가치를 긍정한다.<sup>13)</sup> 이 점에서 볼 때 김정희가 청 중기 대표적인 駢文 대가들의 문장을 뽑아 놓은 《八家四六文抄》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정희 문론의 기본 성향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秋史舊藏書目錄》에 駢文에 대한 完원의 견해를 담고 있는 〈文筆考〉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sup>14)</sup>은 김정희가 소장하고 있던 중국서적과 그의 학문경향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欽定四庫全書總目》역시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정희의 학문은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欽定四庫全書總目》은 청대 고증학을 대표하는 목록서로서 18- 19세기의 조선학자들에게 청조의 고증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서적으로 이용되었던 서적이다. 그러므로 김정희가 이 서적을 소장했었다는 사실은 그가 청의 友人인 翁方綱, 阮元 등으로부터 고증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과 더불어 그에게 청대 고증학의 다양한 면모를 접촉하게 해준 서적으로 생각된다.

둘째, 장서각 중국본 고서가운데는 적지 않은 西學 관련 서적이 존재한다. 먼저 소장 西學書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sup>15)</sup>

- 13) 駢文에 대한 김정희의 견해와 完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준필, 〈19세기 문 관념의 한 국면 - 김정희 문론의 역사적 의의 탐색 시론-〉, 《大東文化研究》 제41집, 2002, 67-79쪽을 참조할 것.
-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동원, 〈秋史 金正喜의 舊藏書目錄 考察〉, 《디지털도서관》 2012년 봄호(통권65호), 94-108쪽을 참조할 것.
- 15) 다만 〈史部·外交·通商〉에 수록되어 있는 외교문서들은 논외로 한다. 여기서는 장서각 소장 서학 저술가운데 개인 저술 혹은 번역서를 중심으로 그 저술들이 조선에 전해지고 수용되는 학술적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著者	書名
史部·政書類·法令	丁韙良(美國)編譯	公法新編(2-198)
史部·政書類·法令	丁韙良(美國)編譯	公法便覽(2-198)
史部·政書類·法令	丁韙良(美國)編譯	萬國公法(2-202; 2-203; 2-204)
史部·地理類·方志	麥家圈慕維廉(英)著	地理全志(2-301)
史部·地理類·方志	雪俠兒(英)撰	地學淺譯(2-302)
史部·地理類·方志	李提摩太 著	天下五州各大國志要(2-303)
子部·兵家類	希理哈(布國)撰, 傅蘭雅(英國)口譯	防海新論(3-62; 3-63)
子部·兵家類	金楷理(美國人)口譯, 朱恩錫筆述, 李鳳苞刪潤	兵船礮法(3-64)
子部·兵家類	德國政府 撰	兵船海岸砲位砲架圖說(3-65)
子部·兵家類	水師部(英國)撰, 林樂知(美國)國譯	水師章程(3-67)
子部·兵家類	戰船部(英國)撰, 傅蘭雅(英國)國譯	水師操練(3-68)
子部·譜錄類	鄧玉函(明)口授, 王徵(清)譯繪	遠西奇器圖說錄最(3-178)
子部·譯學類	商務印書館 編輯	華英進階(3-190; 3-191)
子部·雜家類	丁韙良(美國)著	西學考略( 3-211)

위에서 언급한 장서각 소장 漢譯西學書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소장 서적이 모두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의 도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丁韙良의 본명은 威廉·亞歷山大·彼得森·馬丁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 으로 그는 원래 미국 북장로회가 중국에 파견한 선교사였다. 후에 선교보다는 서양 문물을 중국에 소개하

고 이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정을 바쳤다. 즉 서양의 많은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의 근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丁韪良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된 萬國公法(2-202; 2-203; 2-204)은 구한말에 조선에도 소개되어 조선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16)</sup> 李提摩太(Timothy Richard, 1845-1919)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1891부터 1916년 사이에 당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했던 신식 출판사의 하나인 廣學會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십여종의 신문잡지와 이 천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여 서방의 선진적 사상을 중국 지식인에게 소개하였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天下五洲各大國志要》는 《三十一國志要》라고도 불리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31개국의 영토, 역사, 인구, 종교 등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중국인들이 중국과 세계의 기타 국가를 대비적으로 관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서적이다.

조선 후기 淸으로부터 서학서가 조선으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조선의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은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태도를 표명한다. 서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한역서학서의 종교적 측면을 수용하여 조선에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이에 비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경우는 서학의 종교적 측면은 부정하지만 과학, 기술적인 면은 긍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sup>17)</sup> 다만 정조15년 辛亥迫害 사건과 더불어 관부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학서는 물론 민간의 서학서도 소각되었고, 이후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짐에 따라 북경에서의 서학서 구입도 금지되어 서양 과학문명을 수용할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장서각에 적지 않은 한역서학서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선 지식인들은 다시금 중국으로부터 漢譯西學書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한역서학서의 내용을 볼 때 여전히 종교적인 내용과는 관계없는 실용성(법, 지리, 군사, 언어)을 강조하는 서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서각이 20세기 초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서학에 대한 조선 왕실의 태도는 이전의 천주교 박해라는 배

1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준섭, 《韓末 萬國公法の 수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대학원 석사논문, 2002를 참조할 것.

17) 漢譯西學書가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원순, 〈明·淸來 西學書의 韓國思想史的 意義〉, 《朝鮮西學史研究》, 서울, 一志社, 1996, 80-98쪽을 참조할 것.

타적인 태도와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장서각 소장 중국본 서학서에 대한 검토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東亞細亞西學史의 한 축을 담당하는 朝鮮西學史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조선서학사 연구는 대부분 천주교 선교사들이 번역한 한역서학사의 조선 전래와 그 영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향후에는 조선 말 기독교 선교사들이 번역한 한역서학서의 국내 유입과 그 영향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될 경우 장서각 소장 한역서학서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중국본 고서는 근대이전 우리의 선조가 외래문화를 접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는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중국 문화의 한 단면이며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중국 문화를 어떻게 수용, 발전시켰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학의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浙江採集遺書總錄》(2-341)을 들 수 있다. 이 고서는 정조년간에 편찬된 《內閣訪書錄》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편찬과정과 관련하여 《內閣訪書錄》의 내용이 대부분 (淸)鐘音 등이 編한 《浙江採集遺書總錄》에서 발췌되었고, 일부분만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內閣訪書錄》에 수록된 서적이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수록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같은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제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內閣訪書錄》의 편찬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內閣訪書錄》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들은 정조년간 조선 왕실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했던 서적들이다. 즉 《內閣訪書錄》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들은 통치이념의 확립 혹은 문물제도의 정비 등에 대한 조선 왕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18) 정인식, <《內閣訪書錄》解題>, 《奎章閣》第13輯, 1990, 59-60쪽.

있다. 이런 까닭으로 《內閣訪書錄》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조선 왕실이 지향했던 사상적, 문화적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內閣訪書錄》과 《浙江採集遺書總錄》의 易類에 수록된 서적의 종류와 양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浙江採集遺書總錄》	《內閣訪書錄》
唐代 以前	周易注(陸績撰) 등 3종	周易舉正三卷(唐郭京撰) 1종
宋代	周易口義十卷(宋胡瑗撰) 등 25종	周易口義十卷(宋胡瑗撰) 등 11종
元代	周易折衷二十三卷(趙采撰) 등 8종	無
明代	周易旁註十卷前圖一卷(朱升撰) 등 107종	易(經)蒙引二十四卷(明蔡清撰) 등 10종
清代	易學象數論六卷(黃宗羲撰) 등 55종	周易集解增釋八十卷(清張仁浹輯) 1종
합계	195종	23종

먼저 《內閣訪書錄》의 易類에 수록된 23종 가운데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서적도 《古周易十二卷》(宋晁說之撰), 《大易粹言十卷》(宋曾種撰), 《周易集義六十四卷》(宋魏了翁纂), 《周易義海撮要十二卷》(宋李衡撰), 《易蒙引二十四卷》(明蔡清撰), 《易存疑十二卷》(明林希元撰) 등 6종에 달한다. 이 점은 《內閣訪書錄》을 편찬할 때 대부분의 서적을 《浙江採集遺書總錄》에서 발췌했다는 견해는 비록 타당성은 있으나, 더욱 정밀한 비교작업이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浙江採集遺書總錄》에는 元代의 역학 저작 8종이 수록되어 있지만 《內閣訪書錄》에는 단 하나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청대 저작도 단 1종류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수록되어 있는 元代의 역학 저작 8종 가운데 《周易集傳》(龍仁夫撰)과 《周易衍義》(胡震撰) 2종은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고, 《大易法象通贊》(鄭淵孫撰)은 《四庫全書》의 存目に 수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그 학술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內閣訪

書錄》은 《浙江採集遺書總錄》에서 대부분의 서적을 발췌하면서도 易類에는 단 한 종류의 원대 저작도 수록하지 않았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선 후기에 대두된 소중화사상으로 인해 元이 이민족이 세운 중국의 정통왕조가 아닌 까닭으로 당연히 그 시대의 학술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경향이 직접적으로 조선 왕실의 서적 수집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兵家類의 경우는 易類와는 약간 다른 경우이다. 《浙江採集遺書總錄》에는 총 23 종류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內閣訪書錄》은 13 종류의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록 서적은 모두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수록되어 있다. 비유적으로 볼 때 易類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수록된 서적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왕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후에 군사적으로 정비가 절실한 입장을 대변하는 서적 구입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內閣訪書錄》의 각 類門에 수록된 서적을 《浙江採集遺書總錄》의 수록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조선 왕실의 서적 수입 경향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浙江採集遺書總錄》이라는 중국 고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조선 왕실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장서각에 소장된 중국 고서가 한국학 연구에 있어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 Ⅲ. 藏書閣 소장 중국본 고서 정리와 연구의 문제점

#### 1. 인식 전환의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가 높은 문헌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고서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대부분 한국본에 집중되어 왔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다수 연구자가 한국

학(혹은 국학) 연구라는 개념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신앙, 제도, 예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국사학 따위이다.

이 관점에서 가장 핵심은 「고유한」에 있을 것이다. 즉 국학연구의 중심이 「고유한 것」이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힐 경우 중국고서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로 한국학 연구의 토대 혹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점이 현재까지도 국내 소장 중국고서를 한국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이전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 유통에 이어서 중국 서적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필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여 그 내용을 자국의 문화에 적용, 발전시키면서 중국문화와 비교할 때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갖춘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조선후기, 특히 18세기는 동아시아 차원의 세계질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은 淸나라 및 일본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였는데, 일본과의 교류가 주로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것이었다면, 청과의 교류는 乾隆帝 이후 전성기를 맞이한 청의 사상과 문물을 수용·흡수하여 우리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요컨대 18세기 이후 조선 왕실은 중국과의 활발한 서적교류와 소통을 매개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창달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한국에 유입된 중국고서는 국학 연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임을 부정할 수 없다.

千惠鳳은 일찍이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藏書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1974.12)에서 「中國版圖書는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韓國學을 연구함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韓國學의 태반이 본시 中國學을 흡수한 토대위에서 民族의 固有한 傳統과 地域的인 特徵을 구현하는 方向으로 獨特하게 創造·蓄積·發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祖上들의 傳統的인 學·思想·學術·文化가 과연 무엇이며, 그 性格과 特徵이 도시

어떠한가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中國文獻을 섭렵하여 우리의 것과 比較究明 하여야만 그것이 비로소 闡明되고 浮刻되는 것이다.」<sup>19)</sup>라고 한국학 연구에 있어 중국문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몇 십 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중국문헌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서각(심지어는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문헌)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한국학 자료에 비해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정리와 연구가 상당히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諸問題

目錄은 본래 모든 학문의 기본이자 초학자들을 올바른 학문의 길로 인도하는 입문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한 고서 소장기구가 편찬한 목록은 소장 고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구서이다.

그러나 장서각에서 1974년에 출판된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적지 않은 미비점 및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직접적으로 장서각 소장된 중국본 고서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서 발견되는 미비점과 오류의 형태를 저자표기 오류, 서명표기 오류, 판본표기 未備, 기타표기 오류 등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著者(生存歷朝名)標記 誤謬

분류	서명	저자표기	
		현재표기	오류수정
經部·禮類·通禮	黃太史參補古今大方詩經大全(1-103)	葉向高(清)	葉向高(明)
史部·目錄類	書目答問(2-336)	涖隱閣編	張之洞(清)編
史部·目錄類	豐順丁氏持靜齋書目(2-345)	元和江(清)編	丁日昌(清)編

19) 千惠鳳,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藏書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 33쪽.

史部·目錄類	海源閣藏書目(2-346)	元和江(清)編	楊以增(清)編
史部·紀事本末類	南疆繹史(2-90)	李瑤(清)撰	溫睿臨(清)撰, 李瑤(清)勘定並撰拾遺
子部·醫家類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3-82)	曹孝忠(宋)等奉勅校勘	唐慎微(宋)撰, 寇宗奭(宋)衍義
子部·藝術類·書藝	寶賢堂集古法帖(3-129)	奇源(明)	朱奇源(明)
子部·雜家類·雜考	弇州山人讀書後(3-194)	朴世貞(明)撰	王世貞(明)撰
子部·雜家類·雜編	戴氏叢書(3-243)	段氏栽(清)著	段玉裁(清)著
子部·雜家類·雜編	隨園三十種(3-255)	錢唐袁(清)編輯	袁枚(清)編輯
子部·類書類	圖書編(3-282)	章漢(明)甫編	章漢(明)編
集部·別集類	東坡先生詩集註(4-82)	蘇瞻(宋)著	蘇軾(宋)著
集部·別集類	復初齋文集(4-110)	復初齋(清)撰	錢謙益(清)撰
集部·別集類	李氏焚餘(4-166)	撰者未詳	李贄(明)撰
集部·詩文評類	帶經堂詩話(4-205)	張宗柟(清)編	王士禎(清)撰, 張宗柟(清)編

2) 書名標記 誤謬

분류	저자	서명표기	
		현재	오류수정
經部·書類	蔡沈(宋)編, 鄒季友(宋)音釋	書卷(1-83)	書集傳(1-83)
經部·禮類·通禮	葉向高(明)	黃太史參補古今大方詩經大全(1-103)	葉太史參補古今大方詩經大全(1-103)

子部 · 雜 家類 · 雜 編	金簡(清)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3-276)	欽定武英殿聚珍版叢書(3-276)
子部 · 類 書類	陰時夫(元) 編輯, 陰中 夫(元)編註	韻存群玉(3-310)	韻府群玉(3-310)
集部 · 別 集類	錢謙益(清), 錢曾(清)箋 註	牧齋有學集詩註(4-99)	牧齋有學集詩註(4-99)

## 3) 版本標記 未備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한 고서의 판본 감별의 기준을 「책에 표시된 干支紀年에 의해 정한 것」, 「刊行年을 序·跋年에 의하여 정한 것」, 「刊行年을 推定한 경우」, 「刊行年이 未詳인 경우는 가능한 限 그 年代를 넓게 推定한 경우」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sup>20)</sup> 최초 목록 편찬자들의 세심한 고려와 목록 편찬에 대한 전문지식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판본 표기를 함에 있어 「책에 표시된 干支紀年에 의해 정한 것」은 소수이고 대다수가 나머지 근거에 따라 표시함으로써 판본 표기에 있어 정확한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經部·小學類·韻書에 수록되어 있는 顧炎武의 《音學五書》(1-259: 1-265)의 간행사항에 대해 편찬자들은 책 안의 序文 「崇禎癸未(1643)易月之朔石倉居士曹學佺書」에 근거해 「明, 崇禎 6(1633)序」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音學五書》의 간행은 (清)康熙六年(1667) 이후로 진행되었다. 즉 《音學五書》는 明末에 撰하였으나 그 후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는 康熙六年(1667) 이후에야 간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sup>21)</sup>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내용가운데 판본표기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는 고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20)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4-5쪽.

21) 《音學五書》의 版本問題에 대해서는 張民權, 〈符山堂刻本《音學五書》版本問題考釋〉, 《文獻》2004年10月第4期, 161-168쪽을 참조할 것.

분류	서명	판본표기	
		현재	수정 내용
經部·易類	易經蒙引 (1-26)	明, 嘉靖8(1529)序	明末敦古齋刻本
經部·小學類·字書	六書精蘊 (1-243)	明, 嘉靖19(1540)跋	明嘉靖庚子(十九年)魏希明刊本
史部·別史類	重訂路史 (2-110)	明末(1600-1630)	明仁和吳弘基重訂本
史部·雜史類	弇州史料 (2-111)	明朝年間	明萬曆間刊本
子部·術數類	陰陽五要奇書(3-101)	清, 乾隆55(1790)	清乾隆庚戌(1790)重刊本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판본 기술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刊行年을 序·跋年에 의하여 정한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본 감별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경우 정확한 간행년도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내외에 출판된 解題와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 판본의 간행년도를 비교하면서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4) 기타 표기 誤謬

분류	서명	현재	오류수정	비고
經部·小學類·字書	六書精蘊 (1-243)	5行1字	5行 10字	版式 표기 오류
史部·傳記類	宋元學案 (3-144)	宋元學案 (3-144)	宋元學案 (2-144)	一連番號 표기 오기
史部·雜史類	弇州史料 (3-111)	弇州史料 (3-111)	弇州史料 (2-111)	一連番號 표기 오기
子部·雜纂	昨菲菴日纂 (3-230)	崇德8(1643)序	崇禎8(1643)序	간행년도 오기
集部·總集類	《文選》 (1-20)	《文選》(1-20)	《文選》(4-20)	一連番號 표기 오기

결론적으로 현재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내용은 적지 않은 곳에서 오류 및 미비점이 발견된다. 이 점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IV. 향후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 정리방안

##### 1. 目錄編纂

상술한 바와 같이 1974년 출판된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안에 수정판 목록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재실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차원에서의 실사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목록의 편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를 통해 상술한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다. 이외에 목록의 완성성을 모도하기 위해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을 수정, 편찬할 경우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본 중국고서도 새로 편찬할 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 편집, 출판되는 고서목록의 체례에 따르면 고려나 조선에서 인출된 중국고서는 한국본 목록에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조선인의 저작이라도 중국에서 간행되면 중국본 목록에 수록하고 있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도 중국본 조선 문인의 문집이 수록되어 있다. 바로 新鉛活字版으로 중국에서 간행된 申緯의 시집인 《申紫霞詩集》(4-137)이다. 이런 분류방식은 기존의 국내 고서목록이 갖는 하나의 常例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의 고서 소장목록에서는 필요한 경우 한 서적의 간행 지역을 불문하고 저자가 중국인인 경우 하나의 목록에 수록함으로써 하나의 저작에 대한 판본이 중국이외의 지역에서도 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만에서 출판된 《臺灣公藏善本書目書名索引》,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本》 등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한국본 중국고서는 한국본 고서목록에 수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중국본 고서목록에 수록하는 것이 옳은가? 판본의 지역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 한국본 중국고서는 한국본 고서목록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의 중국고서가 한국에 전파된 후의 간행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해당 중국고서의 중국판본가운데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목록을 통해 알 수가 없다. 이 점에서 필자는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이라는 기존의 서명을 《藏書閣所藏中國古書總目錄》으로 수정하고 장서각에 소장된 중국본과 한국본 중국고서(저자가 중국인인 저술)를 모두 수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고서는 무엇이며 그 가운데 한국에서 간행된 서적은 무엇인지를 목록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한중 서적교류사라는 중요한 과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의 문제이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에 대해 〈凡例〉에서는 四部分類法을 기준으로 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목록서인 《四庫全書總目》의 분류법을 참고하고 동시에 장서의 량에 따라 적절한 수정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이런 까닭으로 그 분류법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부분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經部의 처음에 등장하는 〈總經類〉는 《四庫全書總目》의 〈五經總義類〉에 해당하며 〈孝經〉과 〈四書〉의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集部의 〈尺牘類〉는 《四庫全書總目》에는 나타나지 않는 類目이며 특히 集部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小說類〉도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子部에 위치하고 있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서 〈尺牘類〉나 〈小說類〉를 集部에 위치시킨 것은 현대적인 분류개념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분류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叢書를 어떤 類目에 배치하는가의 문제이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經部·總經類에는 叢書인 《通志堂經解》(1-12) 1802卷 480冊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通志堂經解》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들은 모두 經部에 속하는 것이므로 《通志堂經解》가 총경류에 수록된 것은 타

22)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凡例〉, 3쪽.

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通志堂經解》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경부 저작들에 대해서는 類門을 달리하여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經部·易類에 수록되어 있는 《大易緝說》(1-16), 《童溪王先生易傳》(1-17), 《東谷鄭先生易翼傳》(1-18), 《丙子學易編》(1-20), 《復齋易說》(1-21), 《三易備遺》(1-22), 《水村易鏡》(1-23), 《易裨傳》(1-29), 《易小傳》(1-30), 《易數鈞隱圖》(1-31), 《易雅》(1-32), 《易學啓蒙通釋》(1-34), 《紫巖居士易傳》(1-36), 《周易玩辭》(1-48), 《周易義海撮要》(1-52), 《周易輯聞》(1-57), 《漢上易傳》(1-66), 《晦庵先生朱文公易說》(1-68), 《橫渠先生易說》(1-69) 등은 모두 《通志堂經解》라는 叢書에 수록되어 있는 역학 저술이다. 그렇다면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通志堂經解》라는 서적을 필요에 따라 총경류 또는 經部·易類로 이중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비록 〈凡例〉에서 「二個處에 分類할 수 있는 主題는 그 中 한 곳에 모으고, 다른 곳에서는 必要에 따라 分類參照를 내주었다.」<sup>23)</sup>라고 한 서적이 이중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通志堂經解》의 경우에는 분류참조에 대한 설명도 없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通志堂經解》를 제외한 기타 총서는 子部·雜家類·雜編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내용적인 면에서 《通志堂經解》에 수록된 저서가 모두 경부에 속하고 기타 총서에 수록된 저서들은 經史子集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通志堂經解》에 수록된 개별 저작을 經部·易類로 분류하였듯이 기타 총서에 수록된 개별 저작들도 성격에 맞추어 분리하여 처리해야 체례면에서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子部·雜家類·雜編에 수록하고 있는 총서에 대해서는 총서자체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록하고 있는 개별 서적에 대해서는 《通志堂經解》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상술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에 〈叢書部(類)〉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을 수정할 때 분류법에 〈叢書類〉 혹은 〈叢書部〉를 배치하여 《通志堂經解》와 子部·雜家類·雜編에 수록된 총서를 모두 수록하고 각 총서의 子目を 나열하여 기술한다면 상술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목록에 수록하는 서적의 내용과 목록의 체례를 동

23)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凡例〉, 3쪽.

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목록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장목록에 〈叢書部〉를 배치하는 것이 현재 고서소장목록의 일반적인 체례라는 점에서 더욱 고려할 만하다.

셋째,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수록 고서의 배열순서 문제이다.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고서를 수록할 때 書名의 한글자모(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같은 책이 서명의 다름으로 인해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經部·小學類·韻書에 수록되어 있는 《顧氏音學五書》(1-259)와 《音學五書》(1-265)는 같은 책이지만 서명이 다른 까닭으로 선후로 나란히 배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集部·總集類에 수록되어 있는 《文選》(4-20), 《昭明文選》(4-26)과 《梁昭明文選》(4-32) 등 세권은 동일한 서적이지만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연이어 수록되지 못하고 있다. 《諸葛忠武全書》(4-171)와 《忠武侯諸葛孔明先生全集》(4-185) 역시 동일 판본이지만 서명이 달라 분리되어 수록되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새로운 목록을 편찬할 경우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 2. 古書解題

일반적으로 고서 정리에 있어서 목록 작업에 뒤이어 진행되는 것은 고서해제 작업이다. 사실상 고서해제는 한 고서의 저자, 고서의 편찬경위, 내용과 체례, 판본과 문헌가치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글쓰기 방식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서해제의 유무가 소장 고서와 관련된 연구의 진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중국본 중국고서에 대한 해제작업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실사를 통해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수정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해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 내용의 多寡를 불문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 해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위 해제의 핵심 사항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24) 국내 중국고서 정리와 해제작업의 관계 및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김호, 〈한국 소장 중국고서 정리와 연구에 관한 序說 — 고서 해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71호, 2011.12, 485-506쪽을 참조할 것.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항목	주요 내용
1	서지사항	版式, 刻工, 藏書印, 牌記
2	저자소개	저자의 생애와 주요 학술활동
3	체례와 내용	해당 고서의 체례와 핵심 내용
4	판본소개	현존 제 판본과의 비교
5	문헌가치	판본 가치, 내용 가치, 한중 서적교류사적 가치
6	국내외 소장현황	세계 여러 소장기구의 소장현황

상술한 기준에 따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易經蒙引》(1-26)의 해제를 간략히 작성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sup>25)</sup>

### 1) 서지사항

서명/저자사항: 易經蒙引/ 蔡 淸(明) 著; 宋喜公 重訂

간행사항: 明末敦古齋刻本

형태사항: 線裝 24卷13冊: 四周雙邊, 半郭 20.6×11.3 cm, 有界, 半葉 9行25字, 註雙行, 上黑魚尾: 24×13.1 cm

裡題: 蔡虛齋先生易經蒙引

序: 嘉靖八年(1529)九月二十九日本部尙書李等具題十月初一奉

紙質: 唐紙

藏書印: 淺見藏書,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外1種

### 2) 저자소개

蔡淸(1453-1508)은 字가 介夫, 號는 虛齋이며 晉江人이다. 明成化二十年(1484) 그의 나이 31살에 進士가 되었다. 벼슬은 禮部祠祭員外郎, 江西提學副使, 南京國子監祭酒에 이르렀다. 평생 六經, 諸子書와 史書 등을 힘써 배웠고 특히 程顥, 程頤, 朱熹 등 宋代理學家의 저작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 어

25) 《易經蒙引》에 대한 해제는 김호, 〈尊經閣所藏中國古書解題(4) - 《重訂蔡虛齋先生易經蒙引》〉(《중국어문논역총간》 제26집, 646-654쪽)의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이다.

러서는 朱玘를 따라 배웠고 특히 《易》에 뛰어났다. 그는 일찍이 晉江의 泉州 開元寺에서 結社하여 《易》을 연구하였는데 李廷機, 張岳, 林希元, 陳琛 등 28명의 당시 저명 학자들이 모두 그 구성원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당시 《易》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이들을 존승하였고 특히 채청의 학설은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런 까닭으로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점차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명대 理學의 대표인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채청의 이학은 주로 주희의 학설을 계승하였다. 예를 들어 그의 《四書蒙引》은 주희 《四書集注》의 학설을 옹호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는데, 이는 明, 淸시기 주희의 《四書集注》가 과거시험의 표준답안으로 자리 잡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것은 채청이 비록 주희의 理學을 계승하였으나 그 학설이 주희 학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희는 理와 氣의 관계에 있어서 理先氣後의 관점을 견지했다. 이에 비해 채청은 「천하가 모두 기(六合皆氣)」라는 관점을 제기하면서 氣先理後의 관점을 제시했다.

채청의 대부분의 저작은 六經의 본뜻을 밝히는 것으로 《四書蒙引》, 《易經蒙引》, 《河洛私見》, 《虛齋文集》 등이 있다. 그의 생평사적은 《明史·儒林傳》에 보인다.

### 3) 편찬 목적과 체례 및 내용

《역경몽인》의 편찬과 간행은 채청의 아들인 蔡存遠이 부친의 필생의 정력이 《역경몽인》에 있음을 밝히고 다만 불행히도 부친이 황제에게 책을 獻呈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음을 아쉬워하며<sup>26)</sup> 《역경몽인》을 조정에 進獻함으로써 이루어졌다. 蔡存遠은 《역경몽인》의 成書過程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학설을 수록하여 그 결과가 쌓여 책을 만들고 《蒙引》이라 이름 짓고 상자에 넣어 보관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렸다(手不停披, 迄裁衆說, 積有成編, 僭名《蒙引》. 向惟藏之篋笥, 若有待於明時).」고 술회한다. 뒤 이어 「신은 이에 홀로 遺書를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라짐을 견딜 수 없어 외람되게도 진헌하여 장차 후대에 믿음을 구하고자 합니다(臣迺獨抱遺書, 不忍湮沒於無聞, 冒昧來獻, 將使徵信於後代).」

26) 〈奏刊易經蒙引勸合〉: 「臣痛念父淸平生精力盡於此書, 不幸謝世, 未及獻呈。」

라고 간행의 목적을 역설한다. 사실상 蔡存遠은 채청의 《역경몽인》을 가정제에게 進모한 것 이외에도 이 책이 內閣에 소장되어 당시 《易》이라는 경전해석의 모범으로 비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부에 《역경몽인》을 보내어 이 책으로 천하 학자들이 학문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sup>27)</sup> 이에 가정제는 채존원이 進모한 《역경몽인》 正本26책과 副本26책 가운데 정본은 스스로가 남겨두고 부분을 예부로 보내 《역경몽인》의 간행을 특별히 명한다. 《易經蒙引》의 각 권의 內容과 編次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卷數	내용	
	十二卷本	二十四卷本
	重刻易經蒙引敍(同安次崖林希元敍)	
	凡例三則(武林讀易人鄭士翔以寧氏告)	
	奏刊易經蒙引勸合	
卷一	周易上經	卷1-9
卷二	周易上經	
卷三	周易上經	
卷四	周易上經	
卷五	周易下經	卷10-18
卷六	周易下經	
卷七	周易下經	
卷八	周易下經	
卷九	繫辭上傳(第一章-第五章)	卷19-20
卷十	繫辭上傳(第六章-第十二章)	
卷十一	繫辭下傳	卷21-22
卷十二	說卦傳(第一章-第十一章)	卷23
	序卦傳 雜卦傳	卷24

十二卷本과 二十四卷本과의 비교를 통해 두 판본의 編次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易經蒙引》은 본래 주희의 《周易本義》의 뜻을 상세히 밝히기 위

27) 〈奏刊易經蒙引勸合〉: 「伏望陛下渙發德音, 俯賜收納貯之內閣, 以備昭代專經之說, 頒之禮部, 以開天下諸生之學。」

한 서적이다. 다만 채칭의 견해가 항상 주희의 학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의할 점이다. 《易經蒙引》이 갖는 내용상의 특징은 당시 많은 《易》學 관련 저작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견해를 자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을 잃어버린 반면 유독 《易經蒙引》은 세밀한 분석과 여러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논지의 증거를 삼았다는 점이다.<sup>28)</sup>

#### 4) 판본 사항 및 국내외 소장현황

현존하는 《易經蒙引》의 판본은 크게 十二卷 계통과 二十四卷 계통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十二卷 계통은 「明萬曆三十八年刻本」, 「明林希元重刻本」, 「宋兆禴重訂明末刻本」 등이 현존하고, 二十四卷 계통으로 「明末敦古齋刻本」, 「明末刻本(葛寅亮評)」 등이 전해진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易經蒙引》은 二十四卷 계통인 「明末敦古齋刻本」이다. 국내에는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은 소장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日本寬文九年己酉(1669)刊本 《易經蒙引》 二十四卷이 소장되어 있다.<sup>29)</sup> 이외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十二卷 계통인 「宋兆禴重訂明末刻本」이 소장되어 있다.<sup>30)</sup>

다음으로 국외의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臺灣에는 장서각 소장본과 같은 판본은 소장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는 華東師範大學圖書館에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한 明末敦古齋刻本 《易經蒙引》 二十四卷이 소장되어 있다.<sup>31)</sup> 이외에 일본지역에는 內閣文庫, 尊經閣文庫, 廣島市立淺野圖書館에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대학 燕京圖書館에도 동일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sup>32)</sup>

28) 〈凡例三則〉: 「細加剖析, 雜以引證, 不負先賢苦心, 註疏家所僅耳, 識者辯之。」

29) 청구기호: 1B2-역14ㄷj.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24卷12冊, 四周單邊, 半郭20.6cm ×14.2cm, 無界, 半葉10行25字, 註雙行, 花口, 上下向黑魚尾이다. 책 가운데 「寬文九己酉歲九月吉辰野田庄右衛門開板」이라는 刊記가 있으며, 口訣略號懸吐本이다.

30) 청구기호: 貴 A02-0008.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12卷12冊, 四周單邊, 半郭21.2cm ×11.6cm, 有界. 半葉9行26字. 大黑口, 下向黑魚尾. 竹紙. 이다.

31)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編, 《中國古籍善本書目·經部》, 上海古籍出版社, 1989, 易類, 65-66쪽.

32) 沈津, 《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中文善本書志》, 上海辭書出版社, 1992, 13쪽.

## 5) 문헌 가치

첫째, 명대 사상사는 명대후기 陽明學의 흥성 전에는 程朱理學의 독존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역학에 있어서도 명초에서부터 명 중기까지 송대 의리학의 영향을 받은 저작들이 많이 나타난다. 채청의 《易經蒙引》도 그런 의리학 저작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타 의리학 저작들이 내용적으로 空疏하고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지 못한데 비해 《易經蒙引》은 비교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로, 명대 중기이후의 역학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崔銑의 《讀易餘言》, 熊過의 《周易象旨決錄》, 林希元の 《易經存疑》, 陳琛의 《易經淺說》 등은 《易經蒙引》의 학설을 인용, 계승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저작들이다. 예를 들어 《四庫全書總目》은 林希元の 《易經存疑》을 가리켜 「그 경전해석 방법은 주희의 《(周易)本義》를 위주로 하지만 많은 부분 채청의 《(易經)蒙引》을 인용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楊時喬의 《周易古今文》에서 《易經存疑》가 《易經蒙引》을 계승한 것으로 약간이 異同이 있을 뿐이다(其解經一以朱子《本義》爲主, 多引用蔡清《蒙引》. 故楊時喬《周易古今文》謂其繼《蒙引》而作, 微有異同).」<sup>33)</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채청의 《易經蒙引》은 卦名, 卦辭, 爻辭의 해석에 있어 주자가 《易》의 「本義」를 중시한 방법을 계승하여 주희의 《周易本義》의 해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 주자의 견해가 정밀하나 간단한 까닭으로 채청의 재해석을 통하여 상관내용의 의미나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四庫全書總目》은 「주자는 程頤 《易傳》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으나, 정이 《易傳》의 뜻을 능히 밝힐 수 있는 학자는 주자만한 사람이 없다. (채)청은 《周易本義》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으나, 《周易本義》의 뜻을 능히 밝힐 수 있는 학자는 (채)청만한 이가 없다(朱子不全從程《傳》, 而能發明程《傳》者莫若朱子; 清不全從《本義》, 而能發明《本義》者莫若清).」<sup>34)</sup>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둘째, 채청은 저명한 명대의 理學家로서 조선후기 문인, 학자들의 저작에 종종 언급되어 진다. 예를 들어 李裕元은 《林下筆記》 제7권 〈近悅編〉(《明儒學案》)에서 상관내용을 간추려 뽑은 것)에서 채청의 학문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李圭景의 《五

33) 《四庫全書總目》, 〈經部·易類五〉, 132쪽.

34) 《四庫全書總目》, 〈經部·易類五〉, 130쪽.

洲衍文長箋散稿·經史編》에서는 《大學》古本說과 관련된 채청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으며, 張顯光의 《旅軒集·續集》第5卷〈雜著·錄疑埃質〉에서도 《大學》원문의 順次에 관한 채청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正祖는 《弘齋全書》여러 곳에서 채청의 학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經史講義〉에서는 〈繫辭傳上第十章〉, 〈繫辭傳下第五章〉, 〈蒙卦〉 등 《易》과 관련된 채청의 견해로 신하들과 문답한다. 이로 볼 때 채청의 《易經蒙引》은 조선중기 이후 조선학계와 일정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其他

먼저,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한 실사를 거쳐 국내외에서 稀貴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출판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예로 든 元板本 《書卷》(1-83)과 《廣韻》(1-261) 그리고 明萬曆積善堂刊本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3-99) 등은 출판한다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장서각 소장 자료 가운데 일반연구자를 위해 출판된 경우는 적지 않지만 절대 다수가 한국 고서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장서각 소장 고서의 학술적 이용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중국본 고서의 출판은 매우 필요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장서각 고서이용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이다. 고서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적절한 이용제한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적으로 장서각 고서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고서 원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론 장서각 소장고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고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마이크로필름뿐만 아니라 원본을 열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정한 심사 혹은 신청을 거쳐 일반 연구자들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서각 소장 중국고서를 골동품 취급하여 서고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 V. 맺는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가운데는 元刊本을 비롯한 문헌가치가 높은 고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는 정리·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러나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본 고서의 정리현황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내용이 많은 부분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셋째, 이런 까닭으로 향후 장서각 소장 중국본 고서를 정리,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실사를 통해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새로운 목록을 편찬, 간행해야 한다. 그 후에 소장 중국본 고서에 대해 일정한 체례를 갖춘 解題集을 쓰는 작업이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서각 소장 중국본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출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文化財管理局編輯,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文化財管理局藏書閣貴重本叢書 第7輯, 서울시, 藏書閣, 1974.
- 이원순, 〈明·清來 西學書의 韓國思想史的 意義〉, 《朝鮮西學史研究》, 서울, 一志社, 1996.
-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書目(經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清)紀昀等奉勅撰, 《四庫全書總目》,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 정인식, 〈《內閣訪書錄》解題〉, 《奎章閣》第13輯, 1990, 59-60쪽.
- 유준필, 〈19세기 문 관념의 한 국면 —김정희 문론의 역사적 의의 탐색 시론—〉, 《大東文化研究》 제41집, 2002, 67-79쪽.
- 〈藏書閣 자료의 현황과 특징〉, 《古典籍》第2輯, 2006.2, 102-103쪽.
- 김호, 〈尊經閣所藏中國古書解題(4)—《石田先生詩鈔》, 《重訂蔡虛齋先生易經蒙引》—〉(《중국어문논역총간》 제26집, 2007.7, 646-654쪽.

- 김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藏書閣 所藏 《新刊補訂簡明河洛理數》의 文獻價値〉, 《중국 문학연구》 39집, 2009.12.
- 김호, 〈한국 소장 중국고서 정리와 연구에 관한 序說 — 고서 해제를 중심으로〉, 《중국 어문학논집》 71호, 2011.12, 485-506쪽.
- 육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의 분석〉, 《書誌學研究》 第52輯, 2012. 9, 266-269면.
- 윤동원, 〈秋史 金正喜의 舊藏書目錄 考察〉, 《디지털도서관》 2012년봄호(통권65호), 94-108쪽.
- 沈津, 《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中文善本書志》, 上海辭書出版社, 1992.
- 汪壽明, 〈韓國部分圖書館所見中國古代“小學”善本書〉, 《華東師範大學(哲學社會科學版)》 1994年第4期.
- 張民權, 〈符山堂刻本《音學五書》版本問題考釋〉, 《文獻》 2004年10月第4期, 161-168쪽.

### 【中文提要】

衆所周知,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爲在韓國一所具有代表性的藏書機構, 與奎章閣、國立中央圖書館一同, 存藏不少中國本古籍, 且其文獻價值也很高。不過, 目前爲止, 對於藏書閣所藏中國本古籍, 很少人進行過整理或研究工作。加上1974年出版的《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也有不少錯誤, 給相關研究者帶來諸多不便。本文鑑於此, 先要說明藏書閣所藏中國本古籍的文獻價值, 並針對藏書閣所藏中國本古籍的整理現況, 指出一些不足之處。最後, 本文對於往後如何整理藏書閣所藏中國本古籍, 提出幾點淺見。

### 【主題語】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中國本古籍,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古書整理, 解題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